

# 광주 국제안전도시 실사 완료... 내년 2월 발표

학교·교통·재해 등 6개 분야  
조례 제정·안전증진사업 추진  
인증 뎀 도시브랜드 위상 제고



질문하는 실사위원 국제 안전도시공인센터 실사단이 지난 2일 광주시청에서 안전도시 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가 지난 2012년부터 도시 위상을 높이기 위해 진행해온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안전도시 인증절차가 최종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내년 2월로 예정된 인증결과 발표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스웨덴 스톡홀름)가 2일과 3일 이틀 동안 진행된 광주 현지실사 완료됐다. 실사단은 데일 헨슨(Dale Hanson)호주 제임스 쿡 대학교 의대교수(국제 실사위원), 조준필 아주대 지역사회안전증진 연구소장, 배정인 인제대 국제안전도시연구소장 3명으로 구성됐다. 실사단은 지난 2일 광주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국제안전도시 공인기준(7개 항목)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안전도시사업 총괄보고'를 듣고 운장현 광주시장을 접견했다. 또 여성발전센터에서 학교안전·도로교통사고예방·자살예방 등 3개 분과 위원회 보고를 받고 시청사 내 안전체험관과 자살예방센터를 둘러봤다. 실사단은 3일 노인낙상사고예방분과와

여성·청소년·아동폭력예방분과, 재해·재난사고예방분과 위원회 보고를 받고 빗고 노노인건강타운과 동구 금동 안심구역을 찾아 안전증진사업을 점검했다. 시는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안전도시 조례제정, 안전도시 기본계획 수립, 6개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분야별 안전증진 프로그램 추진, 국제

안전도시 공인신청서 제출 등을 추진해왔다. 현재 국내에서는 수원, 창원 등 10개 지자체를 포함해 31개국 347개 도시가 안전도시 공인을 받았다. 시가 공인을 받으면 광역지자체로는 부산시, 제주도에 이어 3번째다. WHO 국제안전도시 인증은 안전사고

에 따른 지역사회 구성원의 부상·사망 등 인명피해를 줄이면서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에 부여된다. 국제안전도시로 공인받으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재난안전 분야 '선진도시'로 인정을 받고 도시 브랜드 형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광주시, 식품안전관리 '최우수' 평가

광주시는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실시한 '2015년 식품안전관리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인구 10만명 당 식품위생감시원 수 ▲업체 점검률 및 적발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위촉·활동지수 ▲위해식품 회수실적 ▲수거목표 달성률 등

식품안전관리 11개 지표 분야에 대해 종합적으로 실시됐다. 시는 그동안 시민 식생활 안전과 위생점검에 참여하는 위생공무원을 확보하고,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해 위생감시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현장보고 정비(테블릿PC)로 신속히 보고하는 체계를 마련해 단속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식품안전

관리 인프라 구축에도 힘썼다. 또한, 시민에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국민 다소비 식품 30개 품목과 농·수산물 등 유통식품의 안전성 검사를 하고, 위해식품은 신속히 회수하는 등 체계적으로 위생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식품으로 인한 건강보호와 국제행사를 대비한 철저한 식음료 관리를 위해 ▲식품위생업소 민·관 합동 교차단속 ▲찾아가는 식품안전진단 서비스(ATP축정기 활

용) 실시 ▲시민과 함께하는 민간감시체계 구축으로 식품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 시는 이같은 선제적 식품안전기반 마련과 철저한 식품안전관리 업무로 ▲2013년 식품안전관리 우수기관 ▲2015년 식품안전관리 최우수기관 ▲2015년 식중독 예방관리 최우수기관 ▲식품안전 만족도 조사 특·광역시 중 1위(2년 연속)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광주환경공단 날씨경영 인증기관 선정

전국 환경공단 중 처음 광주환경공단이 전국 환경공단 최초로 전 사업장을 통합한 날씨경영인증서와 현판을 받았다. 공단은 그동안 기상정보를 활용한 계절별 운영계획으로 기상변수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 효율적 관리 및 에너지 절약 등을 통한 비용절감과 무재해 사업장을 달성했으며 날씨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통해 고객의 안전을 확보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상청의 날씨경영 인증제도는 날씨정보를 기업경영에 다양하게 활용해 부가가

치를 창출하고, 기상재해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한 기업이나 기관에게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기상청과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해 이를 상징하는 'W'마크를 수여하는 제도이다. 광주환경공단 박화강 이사장은 "날씨 정보를 적절히 활용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높이 평가 받아 날씨경영 인증기관에 선정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날씨 정보를 적극 활용, 광주시민 맞춤형 고객 서비스 제공 및 재난안전관리시스템과의 유기적인 연계로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

## 광주도시철도공사 '가족친화기업' 인증

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 정선수)가 일하기 좋은 직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높이 평가 받아 여성가족부로부터 '2015년 가족친화기업'으로 선정됐다. 공사는 이번 인증 심사에서 'CEO와 함께하는 직원부초청행사', '데마가정 선정' 등 직장과 즐거운 소통 프로그램 및 '가족사랑의 날', '가치투게더 문화체험' 등의 가족과의 행복한 시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문화를 조성한 점을 크게 인정받았다. '가족친화인증제'는 가족 친화적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이나 공

공기관을 심사를 통해 인증하는 제도로 2017년부터는 인증이 의무화된다. 공사는 지난 2012년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았으며, 유효기간이 3년으로 올해 만료됨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해 심사를 통해 재인증을 받게 됐다. 정선수 사장은 "직원이 행복해야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가족친화적인 직장분위기를 더욱 확산해 일하기 좋은 직장, 신바람 나는 직장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영·호남 구청장들 지역 교류 특강

민형배 광산구청장·박삼석 부산 동구청장 교차 강연 눈길

호남과 영남 지자체장들이 하루 차이를 두고 지역 교류를 위한 '특강'을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일 광산구청 7층 대회의실에서 박삼석 부산 동구청장 초청 강연이 열렸다. 박 구청장은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박 구청장은 어려운 상황에도 포기 않고 역경을 하나하나 극복해왔던 자신의 인생 역정과 부산 동구의 미래 비전을 말했다. 이에 앞서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부산 동구의 초청을 받아 지난달 30일 부산 동구청에서 '자치가 진보다'를 주제로 강연했다. 민 구청장은 "스스로 다스려서 자유롭고 평화로운 자치공동체가 사람을 편

안하게 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만든다"며 부산지역 공직자 300여 명에게 주제 의미를 설명했다. 민 구청장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 ▲더불어락 복지관 ▲클린광산 협동조합 ▲공익활동지원센터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사례를 설명하며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드는 광산구의 노력을 소개했다. 민 구청장은 "지사자, 계도자가 아니라 조정자, 촉진자, 기획자로 활동해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도시의 관계를 더 좋게 정립하는데 공직역량을 동원했으면 한다"고 부산 공직자들에게 당부했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 광주도시공사, 2400포기 '사랑의 김장'

광주도시공사(사장 조용준)는 3일 남구 광주김치타운에서 '사랑의 김장 김치 담그기' 행사를 가졌다. 올해로 3년째를 맞는 김장 김치담그기 행사는 조용준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녹색어머니회, 다문화 이주여성 등 총 100여명이 참여해 김치 2400포기를 담았다. 이날 담은 김치는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생활이 어려운 400세대에 김장 김치를 전달했다.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1500세대에게 약 8500포기가 넘

는 김치를 꾸준히 전달해왔다.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는 매년 도시공사 임직원들이 참여해 기업의 사회공헌 가치를 강화하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부 3.0 서비스 가치를 반영한 대규모 봉사활동이다. 김장에 직접 참여한 도시공사 조용준 사장은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는 저소득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이와 같은 나눔 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 게 많은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펜션·박물관 / 미술관·식당·찻집등 최고 장소

-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879-4, 산25번지
- ▶ 담양댐 하류 바로 옆, 담양리조트 1분거리
- ▶ 대지 2441평, 건물 882평, 임야6726평
- ▶ 과거, 펜션 박물관 식당 찻집 운영(구/송학랜드)
- ▶ 관광특구로 모든 업종 개발가능 / 도 관광 진흥자금 유치 가능
- ▶ 현재 12억 5천만원 대출 있음(연2.1%, 월219만원)
- ▶ 1년후 약 18억 정도 재 대출 가능
- ▶ 법인체 인수시 이전비 1억 정도 절약
- ▶ 시세/감정가 30억 정도
- ▶ 매매 18억 8천만원(12/31일까지 완불 조건)

공동중개환영 H.010-3605-5000

펜션, 리모델링 후(약 2억정도)  
연 2억이상 순수익 가능!